

엔교지 아타고샤 신사 본전

아타고샤 신사는 엔교지 절 북쪽 경사면에 있으며 미쓰노도(三之堂)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8 세기 초엽 이전에 지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331 년에 사원 전체가 소실된 화재를 입자 신의 힘으로 화재를 막기 위해 아타고샤 신사가 세워졌고 미쓰노도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타고샤 신사의 특징은 우아한 유선형 지붕에 있습니다. 수만 장의 얇은 지붕널을 사용해 지붕을 이었습니다. 지붕의 경사는 정면을 향해 우아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로 향한 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치 아래에서 위에서 드리워진 요령을 울려 아타고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기도합니다.

엔교지 절 경내에는 신사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불교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의 명확한 구별이 없고 양 종교의 신들이 종종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 역사가 있는 불교 사원 부지 내에 신사가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타고샤 신사는 두 종교적 전통의 장벽을 넘어 숭배된 신불혼효(神佛混淆)의 한 예입니다.